

2006학년도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존 나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김 홍 수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강 정 진

이 논문을 목회학석사 학위(M. Div.)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김 홍 수

김홍수의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심사 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원 원_____ (인)

목 차

I. 서론	2
1. 연구목적	2
2. 연구의 방법	5
II. 장로교의 역사와 정치 흐름	7
1. 장로교 정치의 시작	7
1) 장로교 정치의 제 유형	7
2) 장로교 정치의 성경적 기원	8
3) 장로의 역할	10
2. 로마교회의 변질	11
III.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14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4
2. 제1차리서	17
1) 목사	18
2) 감독관	19
3) 장로	19
4) 집사	19
5) 독경사	20
3. 공중예배 규정서	21
4. 장로교 제도	22
IV. 존 나스의 생애	26

1. 존 나스 이전의 스코틀랜드	26
2. 존 나스의 생애	35
3.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개혁	43
4. 존 나스의 신학	46
1) 교회관	46
2) 성경관	53
3) 나스의 예정론	60
5. 칼빈의 영향- 나스의 신학 사상과 비교	69
1) 성경관	70
2) 죄에 대하여	70
3) 국가에 대하여	71
 V. 결 론	 72
 * 참고문헌	 75

감사의 글

참으로 먼 길을 오래 돌아 왔다는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서원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먼저 나와 늘 함께하시며 날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교수님들과 줄필의 글을 지도하여 그나마 한권의 논집으로 낼 수 있도록 편달하여 주신 강정진 교수님께 먼저 사은의 마음과 고마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동역자로서 늘 기도와 격려, 멘토가 되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 한다. 또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빠 공부 안 해?”하고 일침을 가하기를 주저 하지 않으며 쓰러지려는 날 일으켜 세워준 기특한 하나님의 선물 ‘승현, 주하’에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시며 기도해 주신 많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 자들에게도 오늘이 있게 하여 줌을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두려워 할 줄 아는 종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6. 11

김홍수

제 I 장 서론

1. 연구목적

2007년은 한국 기독교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2007년을 기점으로하여 지난 100년 전의 기억,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물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날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과 자세 그리고 소명을 새롭게 하기에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한 시점에서 한국 장로교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개혁 정신과 청교도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어느 시대나 시대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는 암울함이 먼저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빈이나 존 낙스가 살았던 시대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교회가 권력의 쟁취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에 존 낙스는 정부의 권력이나 억압,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사회를 깨우고 또한 리더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논자는 종교 개혁사를 공부하고 또한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부흥을 꿈

꾸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칼빈이나 루터만큼 우리에게 깊이 있는 연구의 대상으로 각광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온 몸과 열정을 바쳐 연약한 조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롭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존 낙스는 칼빈주의를 현장에서 몸소 세워가는 목회자였다. 존 낙스는 비록 칼빈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많은 것을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존 낙스를 신학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존 낙스는 오히려 목회의 현장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몸소 실천하고 외친 설교가 이었다. 또한 존 낙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칼빈주의 신학과 그 신앙에 기초한 장로교 전통을 수습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대륙의 칼빈주의가 영어권으로 확산되고 또한 영국 전역과 미국으로 건너가 장로교 전통을 발전시켰으며, 한국까지 그 영향이 흐르게 되었다.

둘째, 스코틀랜드의 개혁운동은 장로교의 모체가 되었다고 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운동, 곧 장로교 신앙운동은 후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 졌고, 그러한 흐름은 1880년대 이후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한국의 장로교 교회가 세워 졌고 세계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부흥 한국의 원류로서 장로교단이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장로교의 원류인 스코틀랜드 교회와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존 낙스를 다시 한 번 바라본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¹⁾

셋째, 존 낙스는 국가와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사랑한 개혁자였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 나이다!”²⁾라고 조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한 모습은 갬리선의 노예로 팔려가 있었던 시절에 시작되어 12년간이나 지속된 유랑생활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조국의 온전한 개혁주의적 복음화의 바탕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 목숨도 아까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나라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치는 이 땅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조국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 들어서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그 폭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 모든 시선들이 칼빈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여타의 다른 신학자들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들에 대한 많은 서적들도 저술,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폭이 학문적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존 낙스를 신학자가 아닌 설교가로 목회자로 구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학문을 우리도 존 낙스처럼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손두환, 「종교개혁사」 (서울: 시토스, 1999), p. 284.

2) Paul Carlson, 「장로교의 유래」, 오성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p. 50.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장로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들과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스코틀랜드와 존 낙스의 종교개혁사상에 관한 역사적 서적들을 근간으로 하여 장로교의 근본적 줄기를 쫓아 가고자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제 2장에서는 먼저 장로교의 성경적, 역사적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살펴 볼 것이다. 그러한 약술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이후 근대 장로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존 낙스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고리로서 존 낙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스코틀랜드 초기 종교개혁자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제 3장에서는 존 낙스와 많은 사람의 숭고한 희생위에 세워지게 된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약식과 문서 그리고 장로교의 제도들에 대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제4장에서는 존 낙스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존 낙스 이전의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통하여 존 낙스가 가게 될 개혁의 줄기를 잡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 중반부는 존 낙스의 생애에 대하여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 낙스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겪었던 격정의 일생과 그와 정치적 신학적, 종교적 논쟁과 시련의 시기들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4장의 후반부는

존 나스의 사상과 신학적 입장, 그리고 그가 망명생활 동안 함께 하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존 나스의 신
학과의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개혁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세워
진 한국의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 장로교의 역사와 정치 흐름

1. 장로교회 정치의 시작

1) 교회정치의 세 유형

① 교황정치 - 교황정치는 오랫동안 천주교회에서 유지하여온 정치제도이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놓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또한 교회를 계층구조로 이해하여 여러 계급으로,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에게 주었으므로 교회는 세속정부의 영역까지 관할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³⁾

② 감독정치 - 계급구조를 따르고 교회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다. 교회의 머리는 정부의수반이 되고, 지 교회는 자율권이 없다(성공회와 감리교회).⁴⁾

③ 회중정치 - 개 교회주의를 주장하고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성경적 배경 추구하고 교회와 정부의 분리, 지교회의 자율성 강조로 회중에 의한 목사선택, 교회의 권정을 실시한다. 모든 성직자 모든 교회의 평등을 주장하나 교회연합을 부정하고 있다.⁵⁾

3)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p. 15.

4) Ibid., p. 15.

5) Ibid., p. 16.

④ 장로정치 - 회중교회 정치의 자율사상, 평등사상을 받아들이거나 대표를 선택하여 대리 정치 추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음으로 교회 사이의 연합 강조. 교회와 정부영역을 분리하나 두 기관은 신분상 동등하다.⁶⁾

2) 장로정치의 성경적 기원

① 구약의 배경 - 구약에는 장로라는 말이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장로들은 교회정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출 18:12 아론이 이드로의 잔치에 장로들과 함께 참석, 레 4:15 장로들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도살, 레 9:1; 민 16:25; 출 19:7). 민수기 11장은 백성의 대표로서의 장로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장로 70인을 세워 대의 정치(민 35:12; 출 4:29,12:3; 수 24:1; 삼상 8:4). 구약에서 보여주는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분리된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⁷⁾

이러한 장로직의 존재와 그 영향은 이스라엘의 자치성의 원리와 습성을 배양하였다. 모든 마을은 그 지역의 장로들로 구성된 조그마한 단체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곧 그들의 회당의 모체였다.⁸⁾

② 신약의 배경 -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 그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

6) Ibid., p. 17.

7) Ibid., pp. 18-19.

8) 손봉호,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유양계리온, 1993), p. 24.

사를 주시고 교인 가운데 직분 자를 세우신다(엡 4:11).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의 자질과 의무를 규정, 직분 자를 세움으로 그들 가운데 통치하심(답전 3장; 딤편 1). 또한 말씀은 직분자의 의무, 자질, 기능, 종류까지 명기하셨다.⁹⁾

③ 2 직분론 -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장로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허락한 직분은 장로(또는 감독)와 집사의 2가지 직분만을 인정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에는 구별이 없다고 본다(3 직분론 - 감독주의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은 목사 또는 감독(teacher elder), 장로(ruling elder), 집사(serving office)의 3가지 직분이라고 주장한다. 신약에서의 장로와 감독은 목사에 관한 언급이지 평신도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치리장로에게는 가르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④ 2 직분론자들의 성경적 배경 - 빌 1:1; 딤편 3:1-2,8,12

비록 성경은 2가지 직분만을 인정하나 그 직분의 기능은 셋으로 구별된다. 곧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서 장로란 단어는 늘 감독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제정하실 때는 어떤 명칭보다도 그들의 기능과 활동을 위하여 일군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 성경에서 장로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장로, 목사, 교사, 감독 등으로).

⑤ 사도들의 증거 - 바울은(빌 1:1; 딤편 3:1-2, 5:17; 딤편 1:5-7), 베

9) 오덕교, 「장로교회사」, p. 22.

드로는(벧전 5:1), 야고보는(약 5:1)을 통하여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분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도들은 사도 맛디아를 보충한데 이어서 바로 사도들을 도와줄 7명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7명에 대하여 원문에서는 집사라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이들을 집사라고 단정하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사도행전에서 장로직이 처음 언급되기는 사도행전 11:30이다. 여기서 언급된 장로직은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교회에 구제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낸 일이다. 여기서 언급된 장로직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장로직을 세운 다음인지 아니면 교회의 원로들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3)장로의 역할

① 교회의 일을 의논하고 주관하였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를 사도들이 다 맡아서 목회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절차를 장로회 체제로 처

10) 손병호, 「장로교회사」, p. 51.

리하였다.¹¹⁾

② 장로는 교리나 복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의 보조자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들의 권위 있는 대변자요 대표자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순수 종교직이 아니라 의회직이요 교우직이었다. 신약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 새로운 교리와 복음의 주된 지도자들은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였고, 장로들은 이들의 보조자요 협력자였다.¹²⁾

2. 로마교회의 변질

초대교회는 이러한 장로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1천 년이상 장악되어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로마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넘어선 교회의 권력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물론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학과 음악 미술, 건축은 물론 생활과 신앙과 사상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주관 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의 중심이라는 데서 생긴 말이다.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1세기 때부터 당시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은 1세기 때부터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그런 역사적 근거는 전설 외에는 찾을 길

11) Ibid., p. 55.

12) Ibid., p. 69.

이 없다. 그러면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1세기부터 로마교회의 주도권 장악설을 굽히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베드로(peter)가 1대 교황으로 교마교회에서 취임을 하였다는 주장이 무너지기 때문이다.¹³⁾

로마는 로마 교회보다 로마제국의 수도였다. 당시의 대제국 로마의 권세는 다른 제국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다.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이전부터 로마는 초강대국의 수도로서 군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로마 제국과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로마를 매춘부로 일컬었다. 그렇게도 초강대국인 로마에게 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하며 어떤 황제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받는 핍박은 더하였다.¹⁴⁾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는 강한 어조로 로마 제국을 공박하였다 “행복한 교회여! 여기에 사도들이 그들의 모든 피의 교리와 함께 쏟았도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과 같은 열정으로, 여기서 바울은 요한의 죽음과 같은 면류관을 얻었도다.”¹⁵⁾

그러나 5세기가 못되어 로마는 어느덧 기독교인들의 왕가(王家)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콘스탄틴 황제이후 로마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세계 정복을 꿈꾸었으나 교회는 서방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로마를 중심으로 점점 종착화, 거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로마교회는 정치 세력보다 더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

13) Ibid., p. 86.

14) Ibid., p. 87.

15) Tertullian,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p. 36. 재인용

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각 국에서는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초대교회의 교회 정치 제도 방식이었던 장로제의 부활이 강하게 대두 되게 되었다.

제 III장 스코틀랜드의 개혁신교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언급함에 있어서 먼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종교 개혁의 선물로 주어진 세 가지의 문서 -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치리서」, 「공중예배 규정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가지 문서들이 스코틀랜드 개혁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백서는 개혁교회의 교리적 신앙이 구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 해 주었고, 예식서는 개혁신학에 기초한 교회생활 전반에 걸친 실제적 관례들을 제시했으며 「제1치리서」를 통하여 교회를 운영하며 관리하는 당사자들과 기관들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개혁적 역량들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¹⁶⁾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치리서」, 「공중예배 규정서」등을 바탕으로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정신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존 낙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훗날 1647년 스코틀랜드 교회가 「스

16) 홍치모, 「영미 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의회, 1998), p. 35.

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대신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훨씬 짧지만 정신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였다.¹⁷⁾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수준 높은 많은 성직자들이 3년 6개월에 걸쳐 작성한 것이기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보다 더 완숙하고, 더 간결하고, 더 신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평이한 문체에다 형이상학적 탁월성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중요한 요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제시 했다는 점이다.

세인트 앤드류스의 미첼(A. F. Mitchell) 교수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개혁적인 고백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여러 개신교회의 다른 신조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고백서는 25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하나님, 인간의 창조, 원죄, 계시, 성육신, 선택,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선행, 성례, 성경의 권위, 은사 등에 대한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이 고백서는 1568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승리로 이끌어질 당시

17)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제 1집 (서울: 권콜디아사, 1979), p. 221.

18) A. F. Mitchell, *The Scottish Reformation* (Baird Lecture, 1889), p. 116을 강의현 「존 나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신학 대학원 1991), p. 51에서 재인용

19)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홍치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 149.

낙스를 비롯한 6 명의 존(John)에 의해 4일 만에 만들어졌는데 1560년 8월 17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²⁰⁾ 1648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인하여 전국교회의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삼기까지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사용되어왔다.²¹⁾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칼빈주의적 신앙 성격을 띠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강조하면서 반면에 세속정부와 모든 형식의 이단과 우상숭배를 뿌리 뽑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신앙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²²⁾ 또한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다. 고백서 서론에서 는 인간의 나약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고백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긋나는 조항이나 문장을 발견하면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것을 글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명예와 신실성을 걸고 그에게 만족을 주기로 약속한다. 혹시 그가 잘못되었을 지라도 그것을 수정하여 제시해 주기로 약속 한다”²³⁾

20) Reid, Stanford, 「칼빈이 서양에 기친 영향」, 홍치모, 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270.

여기서 6명의 존은 낙스, 스포티스 우드(Spottswode), 로우(Row), 더글라스(Douglas), 윈램(Winram), 윌록(Willok)을 말한다.

21) Ibid., p. 270.

22) 남수은, 「존 낙스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미친 칼빈의 영향」,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89) p. 70.

23) A. F. Mitchell, *The Scottish Reformation* p. 118-120을 강의현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p. 52에서 재인용.

라고 쓰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신구약 성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고백서의 교훈은 성서가 최종 권위였음이 확실하다. 아울러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앙고백서 작성에 있어 평이 하게 이해되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분명하고 힘 있고 설득력 있게 선언하였다.²⁴⁾

2. 「제1치리서」

이 치리서의 초고는 1560년 4월29일에 집필되기 시작하여 동년 5월 20일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존 낙스가 구교회의 재산을 종교와 교육 그리고 빈민의 복지를 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²⁵⁾

프로테스탄트의 귀족들은 이때까지 스코틀랜드 재산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재산 규정 때문에 귀족들은 본래 이 치리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귀족중의 대다수가 단지 구교회의 재산 분배를 기다리면서 로마교회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귀족들은 이 서류에 개별적으로 서명하고 힘껏 온갖 수단을 써서 그 목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제임스 스튜어트 경, 아

24) Thomas M. Lindsay, 「종교개혁사Ⅱ」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P. 342.

25)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 154.

키발드, 애길의 5대 백작, 클렌케언 백작, 오킬트리 등이 이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에서 참으로 공헌한 자들이었다.

마침내 조건부로 1561년 1월15일 “성직자와 귀족 합동회의”가 소집되어 6일간 치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 논의를 거쳐 초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해밀튼경 이하 27명의 귀족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제1치리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제1치리서는 교회의 정책, 조직 및 치리에 관한 문서로서 “교회정치와 권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체제”라고 불렸다. 교회의 5대 직분자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교회 직분자들은 5명 이었다.²⁶⁾

1) 목사

장로교 목사의 지위와 임무는 현재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 목사는 일정한 시기에 장로들과 집사들과 만나야 했다. 대도시에서 6마일 이내에 있는 목사는 매주 수련회에 모여서 성경연구와 성경해석에 대한 토의를 해야 했다. 목사의 선택은 설교에 그 1비중을 많이 두었다. 목사를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 회중은 그들의 목사를 선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목사는 한번 선택하면 회중은 그를 주 예수의 종과 대사로서 순종해야 했다.²⁷⁾

26) Thomas M. Lindsay, p. 343.

27) A. M. Renwick, p. 156.

2) 감독관

당시에 목사들은 극소수였다. 1560년 제1회 총회 때에 불과 6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가 참석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독경사(Reader)들을 임명해서 주일날 성경과 공중기도서를 읽게 하였다. 이 독경사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10-12명의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감독관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관할지역을 방문하고 매주3회 설교하며, 목사가 없는 곳에서는 성례를 거행하고 권징시행을 감독하며 회중들에게 건전한 기독교 생활을 독려하는 것 이었다.²⁸⁾

3) 장로

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했다. 사건을 판단 결정하는 일, 방탕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일,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의 예의와 대화를 개선하도록 돕는 일에 목사를 도왔다.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였다. 장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사를 권유하고 시정하며 면직이 합당한 경우에는 교회법정에 소송하도록 되어 있었다.²⁹⁾

4) 집사

28) A. M. Renwick, pp. 156-157.

29) Ibid., p. 159.

집사의 임무는 교회재정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고, 구제금을 모아
서 교회에서 정 하는 대로 분배하는 것이었다.³⁰⁾

5) 독경사

종교개혁이후 목사가 모자랄 때, 독경사는 교회에서 주요한 요소였
다. 능력이 인정되면 독경사는 권면자의 지위로 승격되어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해설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많은 독경사들이 열심히 공부하
여 정식목사의 자격을 얻는 자도 많았다.³¹⁾

그러나 「제1치리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로, 비록 1560년 이전에 비밀 교회들을 통하여 개독교회들이 성장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흠어진 교회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 의회
가 갑자기 거국적인 형태의 교회정치 제도를 마련토록 낙스 등에게 요
구함으로써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타국의 제도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로 「제1치리서」가 교회 재산에 대하여 명시
한 것과는 반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재산권을 순수히 포기하지 않았고,
1561년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직접 정치를 관장한 이후, 개
혁가들의 계획은 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0년 개혁가들의 이상들은 포기되지 않았고, 1578년에 작성될 「제2

30) Ibid., p. 160.

31) 김성훈 「존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신학석사 학위논문, 칼빈신학대
학원, 2004), p. 37.

치리서」를 통하여 스코틀랜드 실정에 맞는 교회 정치 제도를 확립하게 된다.³²⁾

3. 「공중예배규정서」

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문헌은 바로 공중 예배규정서이다. 이것은 다른 두 문서에 비하면 이것을 작성하는데 약3,4년이 지연되었지만 그 기원은 꽤 오래된 것이다. 즉 존 낙스가 프랑크푸르트의 난민교회에서 내 놓은 예배규정서가 1555년 제네바의 영국인 난민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채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기도와 예식, 성례전의 집행”이란 제목으로 1556년 2월에 제네바에서 간행 되었다.

귀국한 후 이 「예배규정서」가 프로테스탄트 회중 간에 임의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배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제네바의 예배규정서”라고 쓴 글을 「제1치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공중예배규정서의 초안이 정식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1562년 12월에 교회 총회에서 “성례전의 집행, 결혼식의 거행, 사장의 매장 시에는 제네바의 규정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것이 「공중예배 규정서」에 대한 공식적인 최

32) 홍치모, 「영미 장로교회사」, pp. 41-42.

초의 기술인 것이다. 작성과정은 분명치 않지만 1564년 12월26일의 교회 총회는 목사들에 대하여 최근 에딘버러에서 인쇄된 시편을 입수하여 그 책에 기록된 예배규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공중예배규정서」였다. 현재는 “낙스의 지도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지도서라기보다는 목사에 대한 예배지침서이다. 공중예배규정서는 1637년 소위 공중기도로서 대치하기까지 스코틀랜드교회에서 사용되었다.³³⁾

4. 장로교 제도

존 낙스의 지도 아래 스코틀랜드의 장로회주의는 카톨릭의 반대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해 나갔다. 존 낙스가 죽은 후에 앤드류 멜빌의 지도 아래 장로회주의는 감독에 의한 통지체제인 감독주의에 맞서 그 자신을 변호해야 될 절박한 필요에 접하게 되었다. 1603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까지 겸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한 세기 이상을 각각의 지방이 각각 통치자 아래 있게 되었다. 지독하게 귀족적인 제임스는 장로회주의의 민주주의적인 경향을 이유로 장로회주의에 격렬히 반대했고 그래서 장로회주의를 점차적으로 감독주의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하곤 하였다.³⁴⁾

33) 남수은, 「Jhon Knox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미친 칼빈의 영향」, p. 72

34)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 신학교출판부, 1995), p. 129.

제임스의 아들이요, 왕권계승자인 찰스1세는 그의 아버지의 정책을 한층 더 심화시켜 수행하였다. 163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전 교회에 적용할 예배의 형태를 지정했는데, 그것은 영국의 기도서보다도 더 카톨릭적 이었다. 이듬해에 수많은 목사들, 귀족관, 신사들, 농민들이 오래된 그레이프라이에(Greyfriars)교회에 모였고, 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들과 체제들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국가계약”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뒤이어 모인 스코틀랜드 총회는 제임스와 찰스가 도입한 모든 감독주의의 요소를 부인하고 본래의 장로회주의로 환원하였다.³⁵⁾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정치제도가 상대적으로 완성되고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 때는 16세기 후반기였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핵심인 노회가 변칙적인 지역순회 감독직제를 대체할 때까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국가교회로서 거국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노회를 치리회(Church Courts)중 한 기관으로 포함한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제도는 1592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회 정치형태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정치상황이 이 제도의 실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재차 천명한, 1689년에 가서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1592년에 공인된 규정이 이때에 비로소 안정된 정치형태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특유한 고집으로, 자신들의 장로교 정치제도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1592년에 공인된 장로교 정치

35) L. A. Lostscher, 「세계 장로교회사」, 김남식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6), pp. 43-44.

규정에 더욱 더 애착을 갖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대중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당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1689년 명예 혁명 이후, 확신을 가지고 장로교 정치제도를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이러한 경험은 세속권력이 함부로 교회 문제에 관여하거나 자신들이 고수하는 교회규정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본능적으로 반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주의는 항상 교회권에서 자명하게 정의된, 교회 정치 제도적 원칙들을 대변하고 있다.

개혁된 스코틀랜드는 1560년에 이미 공식적인 교회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추밀원(Privy Council)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에게 요청하여, 국가교회에 걸맞은 교회 정치제도를 기안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개혁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로교 정치형태를 원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교회를 대상으로 한 번도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는 것이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운동은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었으며, 개혁자들이 가진 장로교 정치제도에 대한 경험은 새로이 조직된 지교회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교회규정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교구치리 수준의 제도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560년에 마련된 교회정치 제도는 곧바로 국가교회 운영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제1치리서의 부적합성에 대한 경험은 수정, 보완된 제2치리서를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 치리서는 제1치리서를 만들 당시의 개혁가들이 생각했던, 본질적인 장로교 원

칙들을 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교회에 걸맞은 정치체도로 인정되었다.³⁶⁾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국가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반대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났다. 교회안의 평신도위 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나 이 기구 안에 부유층 신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성직자를 바꾸는 등 많은 횡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로 조직된 것이 분리교회이고 다른 하나의 분파는 구원파 교회였다. 그리고 1847년 분리교회와 구원파 교회가 합쳐져서 일치장로교회를 탄생시켰다. 이 교회는 순수 보수 교회로서 해외선교에 큰 성과를 나타냈다.

1843년 5월에도 국가교회라는 것에 불만을 품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탈퇴하여 자유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여기에 가담한 교회가 약3분의 1에 달한다고 한다.³⁷⁾ 1900년 10월 앞서 발족한 일치장로교회와 자유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 스코틀랜드 일치자유교회라 이름하였다. 또 1929년 10월 앞서 말썽이 있던 국교회적인 스코틀랜드 교회와 최근에 발족한 일치자유교회는 연합계획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통합을 단행하였다.³⁸⁾

36) Janet G. Macgregor, 「장로교회 정치제도 형성사」, 최은수 역 (서울: 솔로몬, 1997), p. 16.

37) 손병호, 「장로교회사」, p. 256.

38) 김진복, 「한국 장로교회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5), pp. 37-38.

IV. 존 낙스의 생애

1. 존 낙스 이전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가 살았던 시대는 스코틀랜드 역사상 매우 복잡한 시대였다. 그것은 정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와 로마교회의 대립에서 야기된 종교적인 요인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세기 유럽의 상황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즉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변화와 확장이 진행되는 혁명적인 시기였다. 중세 봉건적 사고방식은 단지 지식층뿐만 아니라 상인, 제조업자, 그리고 하층 귀족계급 등 중산층에 의해 급속히 폐기되어 갔고, 이미 15세기에 개시되었던 상업, 공업, 정치, 사회조직 등의 진보와 개발은 존 낙스의 생애 전체를 통해 더욱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5세기 3/4분기에 시작되어 16세기까지 계속된 인구증가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유럽 내에서의 은(銀) 생산량의 증가는 이를 더욱 자극하였다. 그 결과 상공업과 인플레이션의 확대가 현저해지고 일련의 경기순환이 나타났다. 그 중 50년대 후반이 가장 불황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점차 부르조아들의 세력이 신장되는 한편 귀족의 세력은 점차 영락의 길을 걷던지 아니면 부르조아와 제휴하던지 선택하여야 했다. 또 중산층의 대두와 더불어 도시생활의 발전도 현저하였다.³⁹⁾

당시의 스코틀랜드 산업은 유럽 열강에 비해서는 소규모적이고, 낙후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산품들, 특히 사치품은 대륙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편이었으나⁴⁰⁾, 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들 곧 애버딘(Aberdeen), 던디(Dundee), 퍼어스(Parth), 애딘버러(Edinburgh) 등은 주로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발틱해 지방에 양모와 해산물을 수출하기도 하였다.⁴¹⁾ 그리고 15세기에 시작되었던 상공업과 인플레이등이 확장 되면서, 16세기 낙스 시대에는 스코틀랜드에도 이미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를 거듭하는 일련의 경기 순환이 생겨 났는데, 그 중 1550년대 후반은 가장 불황의 시기였다.⁴²⁾

변화하는 경제 정세에는 귀족들과 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토지는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금 보유량이 그다지 많지 못했던 귀족 계급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가진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궁정 직위나 자식들을 통한 교회 봉록(benefices)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층 귀족들은 도시의 부유한 중상층으로 떠오른 상인이나 공인들과 혼인 관계를 비롯한 인간 관계를 맺음으로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다.

한편 15, 16세기에 걸쳐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던 국왕은 16세기 중반

39) W. Stanford Reid,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서영일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p. 3.

40) Ibid., p. 6.

41) I. F. Gran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cotland Before 1603*」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930), pp. 159;327.

42) W. Stanford Reid,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p. 6-7.

의 연간 수입이 겨우 17,000 파운드에 지나지 못하였다.⁴³⁾ 그는 이 수입을 갖고 왕실 운영은 물론 반항적이고 부유한 대 귀족들을 상대해야 했고, 국내외의 여러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만 했다.

이러한 봉건사회의 붕괴와 경제적 중산층의 대두는 삶의 양식을 또 한번 바꿔 놓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경제적 중산층의 상승과 함께 동반된 도시들의 발전은 종래 인간 생활의 중심을 성과 궁정으로부터 주요 도시 지역으로 옮겨놓게 되었고 도시 거주민들에게서는 이전보다 사상, 행동 방식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정치와 신·구교의 첨예한 대립은 스코틀랜드의 제 분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시의 스코틀랜드 정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란 그 자체였다. 계속해서 나이 어린 왕들이 즉위하면서 섭정으로 이어져 왕권은 미약하였고, 귀족들은 분열하였으며, 교회는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정치 투쟁에 휩싸이기 일쑤였다. 그리고 유럽 열강은 신흥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군주제”(New monarchies)의 발흥과 이것에서 야기된 숙명적인 역학구조에 휘말리고 있었다.⁴⁴⁾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국왕의 주요 목표는 신흥국으로 부상되고 있던 영국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은 스코틀랜드를 확보하고 이를 작전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영국여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⁴⁵⁾ 대부분의 가

43) Ibid., p. 7.

44) Ibid., p. 18.

톨릭(Roman Catholic)주교들은 헨리 8세(Henry VIII)가 교황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라곤의 캐더린(Catherine of Aragon)과 이혼하고 앤 볼린(Anne Boleyn)과 결혼한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Elizabeth)의 즉위도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대륙의 지원을 받아 가톨릭교의 골수분자인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차기 여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같은 유럽 강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스코틀랜드와 인접해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스코틀랜드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귀속 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의 대귀족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진영,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양분된 채 점차 대결 구조로 변모해 갔다. 그러나 존 나크 시대의 스코틀랜드는 결혼을 미끼로 한 영국의 화해적인 외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세력이 대체로 우세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영국 왕 헨리 8세의 조카이기도 한 제임스 5세(James V)가 1513년 17개월의 유아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을 때, 헨리 8세의 자매를 섭정으로 임명하라는 제임스 4세 (James IV)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프랑스로부터 알바니 공(Duke of Albany)을 불러 들였기 때문이다.⁴⁶⁾ 알바니공은 제임스 5세의 모후 마가렛트(Magaret)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무력 항쟁을 진압함으로써 스코틀랜드를 다시 한번 강력한

45)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 43.

46) 홍치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서울: 종신대학 출판부, 1991), p. 5.

친불 국가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⁴⁷⁾ 두 번째 원인은 프랑스의 세력이 점차 강대해 지는 것을 두려워 한 헨리 8세가 스코틀랜드를 회유케 하려고 끊임없이 압박한 것이 도리어 스코틀랜드로 하여금 더욱 프랑스를 의지하는 국가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존 나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던 기이즈 메리(Mary of Guise)와 스코틀랜드 메리어왕 역시 정치를 종교와 유착시키며 프랑스 정부 및 기이즈 집안 그리고 강경파 가톨릭 주교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재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1557년에 이어 1558년 7월에도 종교개혁을 위한 청원서를 기이즈 메리에게 제출했을때에도 그녀의 딸 메리를 프랑스 군주(D. Francis)와 결혼시키는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혼 성사 이후 그녀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에 대해 종교적 탄압을 일삼았다.

그러나 존 나스 당시 종교 개혁의 시급성은 국가 내에서 로마 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500년에서 1560년 사이에 벌어진 각종 사건들을 통해 교회는, 특히 그 부유한 재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등장하였다. 교회는 전국토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왕의 연간 수입이 17,000 파운드에 불과 했을 때, 교회가 거둬들인 수입은 년 간 300,000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⁴⁸⁾ 이로 인하여 최정상의 사회 계급을 차지한 인

47)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 43.

48) D. Mahoney, "Essays on the Scottish Reformation" ed. by D. McRoberts(Glasgow, 1962), p. 42.

물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교회의 내정 문제에 귀족들이 간섭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당시 횡행하던 족벌투쟁과 각종 정치적 책략 가운데 고위 성직자들이 귀족들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더글라스家가 해밀턴家를 에딘버러에서 쫓아낸 1520년의 “코즈웨이 숙청”(Cleanse the Causeway) 사건에 던켈드(Dunkeld) 주교 개빈 더글라스(Gavin Douglas)와 글라스고우의 제임스 비이톤(James Beaton) 대주교가 연관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⁴⁹⁾ 귀족 계급과 고위 성직자들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직자들이 국가의 재정 및 정치문제에 관련하면서 종교적 의무보다 여기에 더 심혈을 쏟는 예가 비일비재 하였다. 또 로마 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해 있었다. 종교개혁 당시 열두명의 주교들이 사생아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왕이나 귀족들에 의한 사생아 출신으로 보여지는 많은 수도원장들이 또한 자신들의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다.⁵⁰⁾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에 하위 성직자들도 청교도적 금욕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성직자들의 이러한 세속성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로마교회가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갈구를 충족 시켜 줄 힘을 이미 잃었다는데 있었다.

49) P. F. Tytler, "The History of Scotlan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864), p. 315.

50) W. Stanford Reid,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 20.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했는가?. 렌윅(A. M. Renwick) 교수는 대륙의 종교 개혁의 물결이 스코틀랜드에 스며들기 오래전 부터 대략 3부류의 개신교의 성향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적했다.⁵¹⁾ 첫째로, 그는 켈트족 교회(The Celtic Church)를 들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켈트족 교회는 기독교 초기부터 성경을 베껴 쓸 정도로 성경을 뜨겁게 사랑했고, 설교와 16세기 루터에 의해서나 주장되었던 이신칭의(以信稱義) 곧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상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한다.⁵²⁾

그리고 켈트족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켈디파(the Culdees)는 13세기 말까지 스코틀랜드 일부지역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켈트족 교회가 국민들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 1324-1384)와 그의 추종자들을 들고 있다. 렌윅 교수는

“위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스코틀랜드 서쪽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은 신앙문제에 있어서 교황의 무오성을 비롯해서 고백(auricular confession)과 연옥, 성지순례, 성자숭배, 유물숭배 등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일체의 신앙 사상을 비판했다고 한다.”⁵³⁾

그리고 이것은 1416년에 성 앤드류 대학교가 문학석사 학위(M.A.)를 받

51)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p. 9-42.

52) Ibid., p. 9.

53) Ibid., pp. 29-30.

은 모든 학생들에게 롤라드파(Lollards)를 대항하겠다고 서약하도록 요구한 것을 볼 때 반증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로마 교회 내부에도 선량한 신부들과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렌윅 교수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그는 로마 교회 내부로부터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을 표방한 최초의 지도자들과 초기 순교자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패트릭 헤밀톤(Patrik Hamilton)⁵⁴⁾, 위샤트⁵⁵⁾, 그리고 월터 밀른(Walter Myln) 등이다.⁵⁶⁾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발틱해 연안으로부터 돌아오던 상인들을 통해 북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상업 무역로를 따라 들어온 프로테스탄티즘은 곧 상인들과 선원들 간에 등장하였으며, 초기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집안이었던 Wedderburns 家は 이미 1530년대에 루터파로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낙스는 대륙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후, 1540년에 ‘The Gude and Godlie Ballattis’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찬송가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영국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543년에는 일단의 던디 시민들이 도미닉 수도회 건물에 난입하여 성배, 성복, 성찬 등을 훼손, 방기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은 점점 그 영향력을 신장시키고 있었다.⁵⁷⁾

54) 오덕교,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pp. 357-358.

55) Ibid., pp. 355-357.

56)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p. 33-42.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창궐을 막기 위한 위정자들의 탄압은 당연한 결과였다. 위정자들과 로마교회 교직자들은 1525년, 1527년 법률에 이어 1540년 그리고 1551년에도 이단 사상을 지닌 자들에 대한 법률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⁵⁸⁾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다. 이른바 ‘16세기형 대혼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개신교 사상자들에 대한 탄압은 로마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스코틀랜드 정부와 가톨릭 지도자들이 범한 최대의 실수가 되었다. 그것은 군중들 속에 ‘의’(義)가 ‘악’(惡)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는 것과 군중들, 곧 자기들과 똑같이 로마 교회의 품안에서 양육 받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빛에 변화를 받아 참된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어 갔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발맞추어 1546년 St. Andrew 사건이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추진에 두드러진 인물로 부각된 존 낙스의 설교와 문서들은 종교개혁 이라는 거대한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 계곡(Tay Valley)의 촌락, 던디, 에버딘 남부, 그리고 에딘버러 지방의 리이스(Leith) 항구 지역 등의 수많은 귀족들과 신사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포용하고 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추고 있었다.⁵⁹⁾

57) W. Stanford Reid,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p. 33-36.

58) A. M. Renwick,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p. 22.

59) W. Stanford Reid,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p. 34-38.

2. 존 낙스의 생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순교자는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 1503-1528)이었다. 그는 유명한 가문 출신의 재능 있는 젊은이(a talented youth)였다.⁶⁰⁾ 그는 파리와 루뱅(Louvain)에서 공부했고, 후에는 독일의 개혁된 대학인 마르부르크(Marburg)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종교개혁 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527년 그는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의 선포를 시작했다. 1528년 2월 29일 그는 심문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며, 성 셀베이터 대학 앞에서 화형을 당했다.⁶¹⁾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종교개혁의 루터적 단계(the Lutheran stage of the Reformation)의 대표자였다.

16세기 초의 스코틀랜드는 가난한 후진국이었다.⁶²⁾ 왕권이 약한 반면에 귀족들의 세력이 거세었다. 교회는 국토의 반을 차지하여 비교적 부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교회 재산은 평신도 귀족들의 소유였다. 여러 대학들이 있었으나, 교육 수준은 대륙에 비하면 뒤떨어져 있었다.

1543년 국회는 성경 읽기와 번역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1544년에

60) 오덕교, 「종교개혁사」, p. 355.

61) Ibid., p. 356.

62) W. Walker,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p. 391.

이르러 비이튼(David Beaton, c. 1494-1546)⁶³⁾과 친불파는 강한 억압책을 적용하였다.

이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위샤트(George Wishart, 1513-1546)가 활동하고 있었다. 위샤트는 애버딘 대학에서 문학 석사(M.A.) 학위를 취득한 후, 고향에 돌아와서 교장으로 일했다.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이단의 혐의가 있는 자로 소환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그가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피신했으나 1년 안에 브리스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 무렵(1540년 경) 그는 독일과 스위스에 갔으며, 그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의 진전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후 던디(Dundee)와 그 밖의 지역에서 설교했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가 검으며 긴 수염을 가졌다. 태도는 정중했으며 생활방식은 단순했다. 그는 매우 진지한 교사였다. 그는 추기경 비이튼의 명령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1546년 3월 1일 화형을 당했다.⁶⁴⁾ 비이튼 자신은 그 후 3개월 후에 성 앤드류스 성에서 매복 기습을 받아 살해당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존 낙스(John Knox, 1513-1572)였다.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은 그를 “그의 조국과 세계가 빛을 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인”(the one Scotchman to

63) 강정진, 「종교개혁사」 (용인: 칼빈대학교 출판부 2005), p. 543.

64) G.D. Henderson, 「스코틀랜드교회사」, 홍치모, 이은선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회, 1991), p. 67.

whom his country and the world owe a debt)이라고 불렀다.⁶⁵⁾

존 나스는 제임스 5세의 초기인 1513년(혹은 1515년)경에 해딩톤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빈농계급 출신으로서 강,건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위샤트가 설교할 때 검을 들고 그를 호위하기도 했다.

위샤트가 화형을 당한 후, 존 나스는 성 앤드류 성으로 갔다. 그는 그 곳에서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⁶⁶⁾ 그의 설교의 효과는 놀랄 정도였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교황제의 가지들을 쳤으나 그는 뿌리를 쳤다”(Others cut the branches of the Papacy, but he strikes at the roots.)라고 했다.

그 후 프랑스의 공격으로 성 앤드류 성은 함락 당하고 존 나스는 체포되어, 프랑스 노예선(죄수나 노예들이 노를 젓게 한 뚝배)에서 19개월 동안 죄수로 지냈다. 그 배에서 복역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그 배 위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성 앤드류 성에 있는 성 삼위일체 교회의 뽕죽탑을 바라보았으며, 그 때에 그는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나은 시기에(in better times) 그 곳에서 설교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⁶⁷⁾

석방된 후, 존 나스는 잉글랜드의 버위크(Berwich)에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인 목회활동을 했다. 당시에 영국 왕은 에드워드 6세

65) 강정진, 「종교개혁사」 p. 542.

66) J.H.S.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p. 130.

67) G.D. Henderson, 「스코틀랜드교회사」, p. 47.

(1537-1553)였으며,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의 지도아래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다.⁶⁸⁾

존 나스는 5년 동안(1549-54) 버위크에서는 목회를 통해, 런던에서는 설교를 통해, 그리고 대주교 크랜머와의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버위크에서 목회할 때 그는 성찬 참석자들로 하여금 성찬 식탁에 둘러앉게 했는데 그는 그것이 성경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꿇어앉는 것에 대한 존 나스의 반대 때문에 크랜머는 제2차 기도집(the Second Prayer Book)에서 꿇어 앉는 것에 관해 극히 개신교적 설명을 가했다. 즉, 성찬식이 시행될 때 무릎 꿇는 것은 시행되지만, 이것은 경배의 의미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로마교회의 화체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삽입하였다(이것은 나스의 공헌으로 인정된다). 비록 나스가 <제2차 기도집>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일치와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 장관(magistrate)의 명령 때문에 버위크의 옛 회중에게 그 기도집의 사용을 추천하였다.

1553년 메리(Mary Tudor, 1516-1558)는 그녀의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를 계승하여 잉글랜드 왕위에 올랐다.⁶⁹⁾ 메리 여왕은 완고

68) W. Walker, 「교회사 핸드북」, pp. 390-391. 토마스 크랜머는 영국의 개신교회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에드워드 6세의 재위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추진하였고, 후에 메리 여왕에 의해 면직 당했다. 그는 1556년 옥스포드에서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화형을 당했다. 크랜머는 신학적으로 루터파에 속했으며 교부들의 책을 탐독하였다. 그는 힘보다는 부드러운 설득을 통한 개혁을 더 좋아했다 ;

69) 제네바로 돌아간 나스는 칼빈의 <기도의 형식>에 근거해 예전서를 출판했다. 이 「제네바 예전서」는 후에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해

하고 편협한 카톨릭교도였다. 메리의 통치가 시작된 몇 달 뒤 존 나스는 도망을 쳤고 그 후 곧 프랑크푸르트의 영국 유랑민들 사이에 나타났다. 1554년 존 나스는 영국 피난민 교회의 목사직을 수락했다.

후에 존 나스는 제네바에 있는 영국 유랑민들의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1555년 존 나스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했고, 그는 여러 지역에서 표출되는 종교개혁에 대한 관심때문에 대단히 놀랐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9개월 동안 아주 담대히 설교했다.⁷⁰⁾

1559년 5월, 존 나스는 고국의 에딘버러에 도착했다. 이 시기까지 그는 폭넓은 경험을 하였다. 그는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프랑스의 개혁자들과 유익한 접촉을 하였다. 본래 존 나스의 입장은 - 위샤트와 같이 - 쾰빙글리적이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칼빈과의 접촉을 통해 대부분의 면에서 칼빈주의적이 되었다. 존 나스에게는 <제네바> 도시야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로 보였다.

고국에 돌아온 나스는 성 앤드류스 성당에서 설교함으로써(1559년 6월 11일) 자기가 프랑스 노예선에서 품었던 소망을 성취시켰다. 존 나스는 복음적인 기독교신앙의 확립을 위해 개혁세력의 선두에 섰다.

1560년 체결된 버위크 조약(the Treaty of Berwick, 1560년 2월)

사용되었다.

70)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339.

에서 개혁가들은 스코틀랜드에 진주해 있었던 프랑스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보호하에 두게 되었다.⁷¹⁾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섭정 역할을 했던 귀즈의 메리(Mary of Guise)⁷²⁾는 관점과 야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프랑스적이었다. 섭정은 총명했으나 신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개신교도들이 거의 그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귀족들은 섭정에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프랑스 군대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병이 들었고 개혁파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부르면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군대 양편이 다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1560년 6월 11일 그녀가 죽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개신교 목사 존 윌록(John Willock)이었다.

속수무책의 프랑스는 스코틀랜드의 지원도 없고 군대의 증강 가능성도 없이 항복하고 말았다. 1560년 7월 6일 에딘버러 조약(the Treaty of Edinburgh)에 따라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모두 퇴각하게 되었다. 7월 15일에 프랑스가 자기 나라로 출항했고 영국군도 도보로 출발했다. 19일에 존 나스는 많은 교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⁷³⁾

71) 귀즈의 메리는 그녀의 어린 딸(Mary Stuart, 1542-1587 ; 스코틀랜드 여왕, 1561-1568)을 위한 섭정 역할을 했다.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스로 보내졌으며, 1558년 프랑스와 2세(1544-1560)와 결혼하였다(프랑스와 2세는 1559년 프랑스 국왕이 되지만, 연소하여 왕비의 백부인 귀즈 공이 실권을 잡았다). 메리 스튜어트는 1561년 귀국하여 직접 통치하였고, 카톨릭 신앙문제로 엘리자베드 여왕과 대립하였다. 1567년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보드웰(Bothwell) 백작과 결혼했기 때문에, 국내 제후의 반향을 받아, 1568년 왕위를 아들 제임스 6세(잉글랜드 왕으로서는 1세)에게 양위하고, 잉글랜드로 달아나서 엘리자베드에게 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되었다. 후에 엘리자베드를 살해하려고 한 배빙턴(Babington)음모 사건으로 인해 1587년 처형되었다

승리한 스코틀랜드 개신교(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자기네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는 모든 일을 처리할 중앙집권적 권력체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8월에 자체적으로 모인 스코틀랜드 의회는 종교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s Confession)이 스코틀랜드의 정식 신앙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이 신앙문서는 그 색조가 온건한 칼빈주의였다(a document moderately Calvinistic in tone). 또한 이 문서는 칼빈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성례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었다.⁷⁴⁾

개혁교회의 조직과 그 치리체제를 정립하는 문제는 계속 남았다. 존 낙스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회인사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제 1 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하였다(1560년). 거기에는 개혁교회의 조직과 재정문제에 대한 제안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예배는 「존 낙스의 전례서」(Book of Common Order)⁷⁵⁾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존 낙스가 제네바에서 사용하는 예배의식을 개정한 것이었다. 이 <전례서>에

73)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339.

74) 이 신앙문서는 100년 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채택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75) <공동 의식서>라고도 한다.

의하면, 교회 회중은 그들이 매년 선출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이 장로들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확고한 도덕적 규율(firm moral discipline)을 유지하는 데에 목사를 돕게 되어 있었다. 목사는 회중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목사들은 다른 동역자들에 의해 그 신앙과 생활을 엄격하게 심사받고 통과된 후에야(after rigorous examination of life and doctrine by their ministerial brethren) 임명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유능한 목사가 있으면 그는 어떤 한 지역(주로 과거의 카톨릭 교구와 일치함)을 담당하는 <감독자>(superintendents)로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최종적인 권위(final authority)는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전체교회의 총회(general assembly)에 속하였다.⁷⁶⁾

스코틀랜드의 시편 찬송은 다른 곳에서도 같이 개혁교회의 표지였다. 제네바에 있던 존 낙스의 교회에서는 51개의 시편 모음이 사용되고 있었다. 총회는 1564년에 전 시편의 완성과 출판을 제시했다. 제네바의 곡조가 평이 좋았으나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주 그 노래에 화음을 붙여 찬송했다. 그리하여 곧 4부로 된 찬송이 편집되었다. 가사들은 시적인 감각(poetic quality)이 결여되어 있었다.⁷⁷⁾ 그 후의 다양한 번역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제2차 스코틀랜드 시편집(the second Scottish Psalter)이 1650년에 출판되었다.

76) 평신도에게 높은 위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낙스의 이 제도는 후대의 장로 교제도(later Presbyterianism)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77)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p. 303

존 낙스의 저술과 그가 끼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의해 종교적인 면에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 갈래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존 낙스가 가졌던 것은 확실한 일이다. 이 신념 위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세워졌다.

존 낙스는 <하나님의 나팔>이었으나, 후대에 남아있는 설교는 단 두 편 밖에 없다.⁷⁸⁾ 하나는 “그리스도의 첫번째 시험”(마 4:1)이요, 다른 하나는 “왕권의 근원과 한계”(사 26:13-16)이다.

3. 스코틀랜드에서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1561년 8월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이미 그녀는 존 낙스가 자기 최대의 적이며 또 스코틀랜드가 이 양편을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존 낙스는 처음엔 이 메리 여왕이 프로테스탄트 손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었고 곧 그와 비슷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을 세번째까지 알현할 때는 정중한 만남 속에서 작은 논쟁만을 벌였었다. 그러나 네번째 알현에서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조가 보였다. 메리 여왕이 스페인의 돈 카를로스(Don Carlos)와 결혼을 할까 생각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낙스는 자

78)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6), p. 227.

기의 명령을 발하여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강렬한 반대의 경보를 울리게 하였다. 메리 여왕은 국사에 한 이단적인 설교자(낙스)와 일반 평민들이 개입을 한다고 격분하여 존 낙스를 소환하였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어조로 그를 꾸짖고 또 존 낙스를 반역 죄인이라고 고발하였다.⁷⁹⁾

그러나 메리 여왕의 세력은 기울었고, 1567년 메리 여왕은 몰락, 퇴위하게 되었다. 그리고 존 낙스의 오랜 친구인 모레이(Moray)의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의 섭정이 되었다.⁸⁰⁾ 그러나 섭정 제임스는 살해되었고,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과와 섭정 지지파 사이의 투쟁 속에 빠져들어 갔다. 존 낙스는 이 소용돌이 속에 걱정과 근심을 하며 개입하였다. 그러나 존 낙스의 힘은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 존 낙스는 임종의 자리에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 속에 그 비판받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단지 그 인간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참으로 증오하고 혐오한 것인 사실이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기꺼이 은혜

79) 그러나 추밀원(the Privy Council)은 낙스가 반역죄인임을 시인하기를 거부했다.

80) 모레이 백작은 제임스 6세(1566-1625)의 섭정 자리에 있었다.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 왕으로는 제임스 1세이다. 그는 1567년 제임스 6세로 스코틀랜드 왕위에 오르고, 1603년 엘리자베드 여왕 사후 헨리 7세의 자손인데서 영국 왕위를 겸하여 스튜어트가(家)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영국 국교 제도에 힘을 들여, 카톨릭교도나 비국교도를 박해하였다.

를 베푸시사 그의 신비스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그가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너무도 컸기에 전혀 인간들의 눈치를 살핌이 없이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너무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⁸¹⁾

계속해서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감히 고백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이 없으며, 인간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한 점도 없으며, 나 개인의 정욕 혹은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노력하였을 뿐이다.”⁸²⁾

또한 존 낙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언에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니와, 나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순수하게 그의 진리를 보여주는 데 조금도 비겁하지 않았다.”⁸³⁾

81) Reid W. Stanford,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p. 344-345에서 *The Works of John Knox VI* p. 654를 재인용.

82) Ibid.

존 낙스는 1572년 11월 24일에 죽었다.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은 존 낙스를 “우리 민족의 가장 고귀한 선지자이자 사도”(that most notable prophet and apostle of our nation)라고 불렀다. 섭정 모튼(M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그의 일생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Here lieth a man who in his life never feared the face of man).⁸⁴⁾

4. 존 낙스의 신학

1)교회관

①일반적교회관

우리는 존 낙스의 교회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일반적 교회관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존 낙스의 교회관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 A. 하비(Van A. Harvey)는 교회론에 대한 어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에서 번역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며, 그들은 성찬식과 공식적 예배를 위한

83) Ibid., p. 349에서 *The Works of John Knox VI* p. 370을 재인용.

84) G.D. Henderson, 「스코틀랜드교회사」, p. 57.

모임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죽음과 부활의 상징적 의식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⁸⁵⁾

교부시대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거룩한 공동체(Communio Sanctorum 혹은 Communio of Saints)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2세기 경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외부적인 제도와 전 시대에 믿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조직된 성직제도에서 발전되어져서 그것이 교회론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중세기에 두 가지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하나는 로마 교회의 우월성과 다른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다는 관념이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리들을 교회론에 포함시켰다. ⁸⁶⁾

첫째. 교회의 가현성이 강조되었다. 교회의 가현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셨다’는 데 있다.⁸⁷⁾

이것은 말씀이 인간 영혼 속에 내려오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은 가현적인 인간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둘째. 가르치는 교회와 듣고, 배우고, 믿는 교회의 구별이 이루어졌

85) 반 A. 하비, 「신학용어 사전」 (서울 : 소망사, 1992), P. 51.

86)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p. 86.

87) Ibid., pp. 86-87.

다.

전자는 교황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합법적인 성직자의 권위를 존경하는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졌다.

셋째, 교회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교회는 영혼이란 어느 특수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부름받아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자들을 의미한다. 교회의 몸이란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성직자들의 대표자들을(법적 교회의 직원들) 통하여 죄인들을 위해 쌓으신 값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나누어 주신다.

다섯째, 교회는 전적으로 말씀사역을 통하여 참 신앙을 전파하며, 성례를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과, 교회 법에 따라 신자를 다스리는 세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것이다. 그들은 교회가 구원의 수단으로 신적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들의 관점은 사람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믿음은 성례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말씀에 응답함으로 얻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만을 하나의 원천으로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교회 전승의 절대적 권위와 교황의 절대 무오성을 주장했다.

②교회의 본질

비록 존 낙스가 자신의 글을 통해 교회론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어도 그의 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존 낙스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중세 교회의 사상에 대한 반항이라면 존 낙스는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론을 서술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존 낙스는 교회론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존 낙스의 입장은 그의 글에서 얻을 수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론에 대한 그의 사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그의 사상은 다른 개혁자들의 교회론에 대한 사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존 낙스가 주장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점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포함시키고 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존 낙스의 정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를 올바르게 예배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이다. 이런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시대에 선택받은 자, 모든 지역, 국가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유대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라 부른다.⁸⁸⁾

1556년 제네바에서 존 낙스에 의해 사용된 「제네바 신앙고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신자의 교회는 미신과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존 낙스의 사상에는 참된 교회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있다. 존 낙스는 성 앤드류에 있는 교회 회중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1548) 참 교회와 참 종교에 대하여 설명했다. 낙스에게 있어서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는 의미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낙스는 교회의 권위를 거절하고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 교회에 대한 낙스의 입장은 다른 저서에도 설명되어 있다.⁸⁹⁾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사단의 악의와 시기 때문에 박해와 분쟁을 겪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영원토록 압제 당하도록 허락하지

88) *The Works of John Knox*. II, pp. 108-109를 황봉환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에서 재인용.

89) 황봉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 90.

않을 것이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 선택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스는 가시적(유형적 형태든 혹은 비가시적(무형적) 형태든 둘 다 교회라고 믿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한편으로는 가시적(유형)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가시적(무형)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별개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교회의 두 양상에 대하여 제임스 바너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가시적 교회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닌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의 연합체들, 즉 선택된 백성들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적 교회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⁹⁰⁾

교회에 대한 나스의 관점은 그의 초기의 글에는 잘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안에는 교회의 두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 속에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에 대한 약간의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 1560년에 작성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안에는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무형교회는 지나간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이르는 모든 선민을 포함하고 있다. 신앙고

90) Ibid., p. 90. 재인용.

백서는 “이 교회는 무형이며,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그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낙스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의 무형적 관점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의 논쟁에서도 그것을 사용하였다.

낙스는 무형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유형성(유형적 관점)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그의 유형교회에 대한 관점은 그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낙스는 1565년 이사야 26장을 설교하면서 유형교회의 특성들을 설명한바 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에 포함되어 있다. 유형교회는 “많은 수의 사람들, 말하자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위선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임스 타이리가 쓴 편지에 대한 회신에서 낙스는 교회의 영적인 본질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교회는 경건한 선민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유형 교회 안에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91)

낙스는 그의 저서(In The Appellation, 1558)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유형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92)

따라서 낙스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나 중세 가톨릭 교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교회의 모습은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누가 유형교회의 회원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하더라도 지상의 유형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낙스는 참

91) *The Works of John Knox*, Vol. VI, pp. 486, 487, 494.

92) *Ibid.*, pp. 479-480.

된 유형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556년의 「제네바 신앙고백서」와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각각 유사한 형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표지를,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선포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의 올바른 집행 셋째,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권징 이라고 했다. 어디에서든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를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교회의 특성에 관한 낙스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낙스의 교회론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의 교회론적 입장은 신.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성경관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중세의 교회와 교황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거부와 반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기의 주요 특징중의 하나였다. 성경의 중요성의 재발견이란 관점은 종교개혁자들과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의 재 발견은 성경이 로마교회의 전통적 권위나 혹은 교황의 권위보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새로

운 정신과 의미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기에 재 발견된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중세교회에 도전을 주기 시작했다.⁹³⁾

성경의 권위의 본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낙스에게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오직 성경만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어였다. 그들은 종교에 있어서서의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성경적 근거를 요구했다. 낙스의 저작과 실천적인 활동을 재음미해보는 것은 성경과 그 권위에 관한 개혁주의적인 이해를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스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대한 견해는 생각만큼이나 쉽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칼빈의 성경에 관한 견해를 잠시 살펴보면은 칼빈은 신,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성경을 본질적으로 성령의 영감과 내적 증거에 의해 계시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칼빈이 성경 권위의 기초로 삼는 최고의 기준은 ‘성령’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의 지침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충족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나 츠빙글리등과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⁹⁴⁾

다른 종교개혁자들처럼 낙스도 그의 저작들에서 근본적으로 개혁주

93)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45.

94) Wendel. Francois, 「칼빈의신학서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7), p. 157.

의적 성경관을 보여준다. 나스는 성 앤드류에서 초기 목회시절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소개했다. 존 윈람(J. Wynram)은 나스를 성 레오나르드(St, Leonard) 대학에 있었던 신학회에 초청했다. 나스는 윈람과 아버클(Arbuckle)과의 논쟁에서 신명기 4장 2절에 근거하여 성경말씀의 권위를 설명했다. 나스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지키라”란 말씀을 인용했다. 또한 그는 윈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쾌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외에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인간에게 행하는 합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도 같은 교리적 입장을 취했다.⁹⁵⁾

나스는 성경이 종교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 나스가 취한 입장은 유럽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보다 단호하였다.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지켰다. 나스가 가졌던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통해 그의 성경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나스의 사상은 성경의 중요한 역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나스의 교리적인 근본 입장은 성경의 명료성 또는 명확성이다.

95)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나스의 신학」, pp. 48-49.

리처드 L. 그리브즈(Greaves)는 낙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다. 비록 명료성과 명확성이란 두 용어가 때로 동의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루터나 칼빈과 마찬가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한다.⁹⁶⁾

그러나 그리브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낙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낙스의 입장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의 1차 대담에서 다른 개혁자들의 입장보다 더욱 분명하게 언급되었다는 것이 제임스 S. 맥이웬 교수의 주장이다.⁹⁷⁾ 하나님의 말씀은 낙스에게 ‘평이한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평이한 성경’이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낙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명백합니다. 혹 부분적으로 모호한 곳이 있다면 자신을 결코 속이지 않는 성령께서 같은 내용을 성경 다른 곳에서 보다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애매모호한 것은 모르는 상태로 둘 뿐입니다.”⁹⁸⁾

96) Richard L. Greaves,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Scottish Reformation*, Christian University Press, U.S.A, 1980, P. 5 를 황봉환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51에서 재인용

97) James S McEwen,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4), p. 34.

98) Ibid.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스는 성경의 명료성을 확신했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나스의 견해는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나스의 교리적 입장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18개 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나스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모호한 구절들은 성령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호소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리차드 L. 그리브스는 “만약 이해될 수 없는 성경말씀이라면 나스는 가족들이나 주간 모임 단체가 성경을 읽고 토론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⁹⁹⁾

둘째, 나스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하다고 간주했다.

이 점에서 나스와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교황 무오설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성경 무오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제임스 S. 맥아웬 교수의 견해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성경의 무오성이 아니라 경험의 문제로서 선포했던 성경의 권위에 있었다.¹⁰⁰⁾

99) Richard L. Greaves,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Scottish Reformation*, P. 20 를 황봉환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과 존 나스의 신학」, P. 52에서 재인용.

100)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P. 310을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나스의 사상」에서 재인용.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낙스의 견해는 그의 저작에서는 조직신학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554년에 런던과 뉴캐슬과 버윅의 개신교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낙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결성과 무오한 진리”에 관해 썼다. 그는 로마 교회의 미사는 성경 안에 계시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장에 근거해 세워진 것이라고 공격했다. 「시편강해」(1554) 서론 4쪽에서 낙스는 정확무오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자신의 양심을 굳게 하였다. 그는 또한 참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장모 배우 여사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에 대한 낙스의 견해에 관해 브리즈는 “낙스의 성경 사용과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주장은 축자 영감설에 대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낙스가 이점을 유일하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¹⁰¹⁾

“어거스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었다. 칼빈은 결코 축자 영감설 관한 교리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에 속한 확실하고 참된 성경의 기록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록은 성령의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칼빈은 주장했다. 그는 성경의 ‘문자적 오류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했다. 루터는 비록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영감을 받아들였다.”¹⁰²⁾

101)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54.

102) Rechar L. Greaves,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Scottish Reformation*, P.19를 황봉환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54에서 재인용.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낙스 역시 성경이 모순이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루터가 생각했듯이 낙스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리처드 G.카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낙스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무오성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명백하게 그는 성경의 본문상의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낙스는 성경의 본문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경 축자영감의 무오성 교리를 세우지 않았다”¹⁰³⁾

셋째로, 낙스의 성경론과 관련해 맥아웬 교수는 낙스가 성경의 계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올바르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계시의 통일성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설명에 따라 일어난 가능성이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연속성의 근거를 가진 많은 성경 본문을 사용했다. 그리브즈가 인용했듯이 “낙스는 구약성경이 신약에 계시된 것들을 예시해 준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이 주장이 구약성경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⁰⁴⁾

낙스는 성경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을 오늘날의 사건에 적용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낙스의 성경이해와 사용은 기본적으로

103) Richard G. Kyle, *The Mind of John Knox*, Coronado Press (America, 1894), pp. 29, 20을 황봉환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p. 54, 55에서 재인용.

104) James S McEwen,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 73.

다른 개혁자들의 견해와 조화를 이루었다. 낙스의 저작에서 성경이 그의 사상과 신앙과 행위를 지배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스의 신앙의 기초이며, 그의 기독교적 경험이었다. 성경은 그 자체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성경의 명료성과 무오성과 단일성에 대한 그의 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변호에 있어서 낙스는 개혁주의자들 중 그 누구보다 더 정통성에 집착하는 옹호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낙스의 예정론

① 낙스의 예정론의 역사적 배경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우주안에서도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되었다. 그의 의지는 영원하며, 불변하고, 거룩하며, 지혜롭고 주권적이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것을 정확히 계획하셨으며, 그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목적은 주권적인 예정 활동 또는 미래에 속한 사건들에 대한 미리 아시는 신적인 지식에 근거해 정하신 활동으로 표현된다.

칼빈은 이러한 예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라고 부른다. 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바를

정하셨다. 왜냐하면, 인류는 누구나 같은 운명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사망을 주시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죽음을 받기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¹⁰⁵⁾

예정론은 칼빈주의가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존 낙스는 그의 저서에서 여러번 예정론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론에 대한 낙스의 신학적 견해는 논리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제임스 맥이웬은 “비록 낙스가 우리에게 그 주제를 오랫동안 취급하도록 남겨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것에서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⁰⁶⁾

낙스가 쓴 예정론에 관한 글들은 조직적으로 신학적인 원리를 세우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들이 아니고, 재세례파와의 논쟁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낙스의 견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⁰⁷⁾ 낙스는 예정론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을 공격했던 재세례파에 대응했고, 재세례파의 주장에 대해 문단별로 조목조목 답변했다. 이 글에서 예정론에 관한 낙스의 논쟁은 447쪽의 분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낙스의 다른 논문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다. 이것은 낙스가 반복적으로 예정론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

105) 존 칼빈, 「기독교강요Ⅲ」, 김종흡외 3명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 518.

106) James S. McEwen,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p.94.

107) Ibid., p.94.

여 준다¹⁰⁸⁾. 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나스는 칼빈의 신학과 예정 사이에 영향을 입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제스퍼 리들리(J. Ridley)는 “나스는 그의 신학에 있어서 칼빈에게 아무것도 보탬이 된 것이 없다. 나스의 스타일과 접근은 매우 다르다. 칼빈은 보다 냉정하고 세밀한 반면, 나스는 열정적이고 직설적이다” 또한 리처드 L 그리브즈도 나스의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영향을 강조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나스의 글이 “칼빈의 교리를 반영하고 명백히 의존하고 있다” 는 점을 말하고 있다.¹⁰⁹⁾

맥이웬은 나스의 예정론의 신학적인 영향과 논쟁에 관하여 “예정론에 관한 글에서 나스는 칼빈의 논증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논증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¹¹⁰⁾라고 말한다.

제네바에서 나스에게 미친 칼빈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나스는 세바스찬 카스텔리오(S. castellio)와 예정 교리에 관해 들었다. 칼빈의 「예정 교리의 요약판」은 테오도르 베자(Beza)에 의해 1555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은 나스의 친구였던 윌리엄 위팅함(W. Whittingham)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 1556년 나스는 토니 길비(Gilby)로부터 예정론에 관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간략한 논문”을 썼다. 그리브즈가 “위팅함과 길비는 제네바에 있던 영국교회의 장로들 이었다”고 지적한대로 결과적으로 나스

108) 홍치모, 「종교개혁의 세계」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p. 167.

109)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나스의 신학」, p. 64.

110) James S. McEwen, 「존 나스의 생애와 사상」, p. 66.

는 예정론에 관한 그들의 저술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② 존 낙스의 예정론의 신학적 발전

낙스의 예정론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에서 낙스의 예정 사상은 교리적인 논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그의 예정 사상은 예정론이 대개 종교개혁 초기에 받아들여진 교리라는 점과 현대 신학 가운데 논쟁의 쟁점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신학적인 배경의 문맥에서 고찰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낙스의 저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는 신비가 낙스의 예정론의 전제이다. 이 전제 하에 그는 “우리는 우리 구원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¹¹¹⁾

예정론에 대한 낙스의 실제적인 접근에 따르면, 그는 구원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예정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필수적이므로 그것 없이는 어떤 신앙도 참으로 배울 수 없고 세워지지 않음이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하다”¹¹²⁾

제임스 맥이웬은 “낙스는 그의 예정론에서 칼빈보다 루터의 방법론을 따른다”고 주장했다.¹¹³⁾ 그는 계속해서 낙스의 예정론은 개인 구원

111)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p. 25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사상」, p. 66에서 재인용.

112) *Ibid.*

이라는 정황에서 시작하여 예정론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까지 나아가 있다고 지적했다.¹¹³⁾ 또한 죄인의 구원이라는 정황에서 예정 교리를 다루는 것은 루터의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여기서 맥이웬이 루터와 관련해 ‘방법’이란 단어를 쓰는 용법은 예정 논증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한다. 예정은 논증의 출발점으로서 인간의 개인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 그런 정황에서 루터와 나스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나스가 예정론에 기초하여 개인 구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고 있고 ‘선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스의 글에서 신학적인 논증 방법은 맥이웬이 앞장에서 주장한 대로 칼빈과 유사성을 지닌다. 나스는 그의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라는 맥락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선한 의지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예정 교리와 참된 신앙이 세워졌다. 인간의 선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근거한다. 더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와 멸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의지는 우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섭리 안에 있

113) McEwen, James S, 「존 나스의 생애와 사상」, p.105.

114) Ibid.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주권적인 지배와 통치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다스리심을 말한다” 115)

그러므로 낙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 교리의 기초를 제공한다. 더욱이 낙스의 예정 사상은 교회론, 하나님의 소명, 칭의, 성화에 대한 견해와 관련되어 있다. 낙스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작정”으로 정의했다. “이 작정에 의해 그는 단번에 홀로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실 일을 결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인간을 확일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116)

보다 넓은 의미에서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를 아는 지식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확증하기로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다. 믿음은 그들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¹¹⁷⁾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예정론을 다루면서 낙스는 예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즉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115)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p.35.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사상」, p. 68에서 재인용.

116) *Ibid.*,

117) *Ibid.*,

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멸망 또는 저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경륜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자신들의 장점이나 존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로 인해 선택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졌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버려진 자들에게 주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 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은 무지한 채로 남게 되고, 그들의 원래의 불성실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며 끝내 멸망하게 된다.¹¹⁸⁾

낙스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인간 창조 전에 정하셨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두 부류, 즉 택자와 불택자(유기자)로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 따른 예정 교리의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다.¹¹⁹⁾

낙스는 예정 교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진술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며, 그 앞에 사랑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증거했다.¹²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었다. 그리고 만물은 그의 뜻

118)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69.

119)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p. 42.

120) Ibid., pp. 43, 72, 73, 에베소서 1:4.

에 따른 권능으로 지음을 받았다. 나스는 바울이 만세 전에 어떤 특정 사람들은 선택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나스의 주장은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스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따라 홀로 만세 전에 어떤 이들을 그의 자녀로 정하시고, 양자 삼으셨고, 다른 이들을 멸망으로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분명히 증명한다. 칼빈도 역시 예정의 두 측면, 즉 선택과 유기의 엄청난 중요성을 인식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 적이고 실천적 관심이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고 했다. 프랑수아 웬델(François Wendel)은 “칼빈의 초기 저작에서 예정론을 조직적으로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어거스틴(Augustine)과 부셔(Bucer)의 영향 아래 그는 예정 교리에 점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했다. 1536년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예정론은 아직 독립된 교리로 나타나 지 않았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알버트 피기우스(Pighius)와 조르기우스(Georgius)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유가 없다”고 어디서도 말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작정이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반대하는 자들의 견해를 부인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선택의 전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받

견되어져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의 한 측면이다. 칼빈이 예정론의 반대자들에 대해 주장하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루터나 부셔와는 달리 칼빈은 미리 아심과 예정을 구분하고 사실상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은 미리 아심은 예정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작정하는 동안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찰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선택의 효력이나 견고함이 믿음에 근거한다거나, 믿음이 선택을 효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¹²¹⁾

칼빈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결코 실패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

예정에 대한 주요 논쟁은 낙스가 「예정론」 (1558-1559)을 쓴 후와 칼빈의 사후에(1564) 일어났다.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유기자) 인간을 지으시고 그가 타락하도록 허용하시기 전에 작정하셨는가 아니면 후에 작정하셨는가? 칼빈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 약간 다른 의견을 가졌다. ‘창조전 선택설’에 대한 견해는 하나님이 구원 또는 저주를 주시기로 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는 작정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그와 반대로 ‘창조 후 선택설’에 대한 견해는 구원을 받도록 선택된 자들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양 견해는 예정을 확고하게 주장한다. 그리브즈는 낙스를 창조전선

121)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71.

택설자로 보았다. ‘낙스는 창조전선택설자이다. 왜냐하면 타락할 자를 정한 작정은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예정의 작정을 뒤따르기 때문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이웬은 “몇 가지 문헌에서 낙스는 창조전 선택설적 교리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는 창조후 선택설적이다”라고 지적했다.¹²²⁾ 그러나 사실 낙스는 그런 신학 논쟁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록 낙스가 “인간의 타락은 창조시에 결정되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서 결정되었다”라고 말하지만¹²³⁾ 작정의 순서, 즉 창조 전 선택설과 창조 후 선택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창조전 선택설과 창조후 선택설의 양 견해가 다 낙스의 예정론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를 두 견해 중의 어느 한 가지 입장을 취한 자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낙스가 그의 논문을 쓰기 전에는 예정의 순서에 대한 논쟁은 없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방법은 낙스에게 중요했다. 낙스는 선행과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아심에 대한 주장을 거부한다. ¹²⁴⁾

5. 칼빈의 영향- 낙스와의 신학사상 비교

1) 성경관

122) Ibid., p. 73.

123)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p. 65.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사상」, p. 73에서 재인용.

124)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p. 73.

칼빈과 나스의 신학 사상을 비교함에 있어서 우선 두 사람의 성경관을 고찰 할 때, 두 사람 모두가 성경을 기독교 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칼빈은 그의 신학적 사고의 출발점을 성경 그 자체에 설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의 구속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것으로 파악하였다.¹²⁵⁾

반면에 나스는 원칙적인 면에서 칼빈과 다를 바가 없으나 기독교인이 선호해야 할 정치적 행동과 정치조직에 관하여 지도 원리로 받아야 할 규범은 언제나 구약성경에서 찾곤 했다는 점에서 칼빈과 다르다¹²⁶⁾ 나스의 성경관은 이점에서 약간 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원죄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한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아직 인간에게 남아

125) 홍치모, 「종교개혁의 세계」 (서울: 아가페 문화사, 2003), p. 222.

126) 열왕기상 10:1.

있어서 그것이 창조적 기능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를 건설하고 정부를 조직하며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고 공의를 구현시킨다. 즉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만은 마비되지 않은 채 남아서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⁷⁾

반면 낙스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다.

3) 국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서 낙스의 기본적인 견해는 구약성경에 입각한 계약국가의 개념을 말한다. 영국과 스코트랜드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는 이중계약사상을 표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고, 둘째는 통치자를 포함하여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관계이므로 국가의 통치자는 백성과 더불어 개척교회가 이룩한 진정한 종교의 성립을 시인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낙스의 논리를 그대로 전개한다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서 마땅히 국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¹²⁸⁾

127) 홍치모, 「종교개혁의 세계」, p. 223.

128) Ibid., p. 6.

제 V 장 결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원시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관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서 성경에서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구약의 출애굽기 이드로의 권고에서 시작하여 초대 교회에서도 12제자는 제자의 빈 한자리를 맛디아로 채우고 그들을 도와 함께 사역할 이들로써 장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후로 장로정치 제도는 교회의 가장 효율적 정치제도 였다. 물론 카톨릭의 교황 중심 주의가 교회의 본질을 왜곡 시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잘못된 사상과 교회관 그리고 인간의 깊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다는 인간이 앞서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가려진 하늘의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 종교 개혁이었고, 종교 개혁의 궁극적 목표 지향점은 장로교 정치 제도와 오직 성경의 본질적 권위를 회복하는데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종교 개혁의 시작이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마무리 짓는 한 단락의 나뉘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이를 이끌었던 존 낙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낙스는 민족적 열세와 주변의 열강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의 정치적 소요들이 속에서도 현 세계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이러한 개혁의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였던 많은 동지들과 자주성이 강한 그들 스코틀랜드의 민족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차일

하고 낙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위에 장로교회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낙스는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또한 인간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겪었던 시련과 또한 영국과의 얽혀 있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독재와 독선이 벗어날 수 있는 오류 들을 보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 할 수 밖에 없었다

2) 낙스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대를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점이기도 하다. 그는 청소년들의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또한 직접 이를 지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전 유럽의 교회들의 개혁 정신과 같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 외에 교회에서는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표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낙스의 개혁사상은 유럽 본토 즉 칼빈주의와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앞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쌓아 놓은 초석위에 제 2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현 시대 교회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성장과 영성의 온전함을 주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먼저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건물 지향주의, 물질 지향주의, 교회의 외형적 성장 주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

락하신 가장 민주적인 종교 정치제도인 장로교의 본질적 정신을 살려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우리의 의견을 집중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안디옥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처음 보여 주었던 장로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참 고 도 서

국내도서

- 강정진. 「종교개혁사」. 서울: 칼빈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진복. 「한국 장로교회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5.
- 손두환. 「종교개혁사」. 서울: 시토스, 1999.
-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유양계리온, 1993.
- 손봉호. 「장로교회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유양계리온, 1993.
-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 _____. 「종교개혁사」. 수원: 합동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 제 1집 서울: 키클디아사, 1979.
- 정장복. 「인물로 본 설교의 역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6.
- 홍치모. 「영미 장로교회사」.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의회, 1998.
- _____.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종신대학 출판부, 1991.
- _____. 「종교개혁의 세계」.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 황봉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존 낙스의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번역서적

- Calvin, John. 「기독교강요Ⅲ」. 김중훈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9.
- Ozment, Steven. 「개혁의시대」. 강정진, 손두환 역.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8.
- Carlson, Paul . 「장로교의 유래」. 오성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Harvey, Van A. 「신학용어 핸드북」. 장동민 역. 서울 : 소망사, 1992.
- Lobscher, Leaflets A. 「세계 장로교회사」. 김남식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6.
- Lindsay, Thomas M. 「종교개혁사Ⅱ」. 이형기, 차중순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 MaCgregor, Janet G. 「장로교회 정치제도 형성사」. 최은수 역. 서울: 솔로몬, 1997.
- McEwen, James S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4.
-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양낙홍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 Reid, Stanford. 「칼빈이 서양에 기친 영향」. 홍치모,이훈영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_____.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서영일역.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 _____.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서일영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Renwick. A.M .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홍치모 역 .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Walker, Willston. 「교회사 핸드북」. 송광택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9.
- Wendel, Francois 「칼빈의신학서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역.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97.

외국 서적

- Knox, John. *The Works of John Knox*, Vol.II. New York : AMS Press. 1996.
- _____. *The Works of John Knox*, Vol. IV. New York : AMS Press, 1996.
- _____. *The Works of John Knox*, Vol. V. New York : AMS Press. 1996.
- _____. *The Works of John Knox*, Vol. VI. New York : AMS Press, 1996.

- Mahoney, D., *Essays on the Scottish Reformation* ed. by D. McRoberts Glasgow, 1962.
- Tertullian, *On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Ante-Nicene Father, Ed, by P, Shaff, 1950.
- Grant, I. 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cotland Before 1603*"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930.
- Tytler, P. F., "*The History of Scotlan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864.

학위논문

- 강의현.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신학대학원, 1991.
- 김성훈.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신학석사 학위논문. 칼빈 신학대학원, 2004
- 남수은.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미친 칼빈의 영향」. 신학석사 학위논문. 서울 신학대학원, 1989.